현대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창조방법

Creative Method of Post-modernism Expressed in Modern Fashion

이은경
대전대학교 패션디자인 · 비즈니스학

Lee, Eun Kyung
Dept. of Fashion Design · Business, Daejeon University

Abstract

Post-modernism exists with different shapes in overall cultural phenomena. Among the creative methods of composing post-modernism, there are representation, parody, plural coding, trans avant-garde etc.

Summing up the influence of creative method of post-modernism on modern fashion led to the following results.

1. The phenomenon appears that value and valuelessness are easily reversed, and things with historical and traditional meanings are being ignored.
2. The boundary between higher culture and public culture is being disorganized, and mixed imitation phenomenon ignoring th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is emerging
3. The mental and historial aspects in fashion pattern are highly thought of and the trend to understand human body from the various angles emerges.
4. In the consumer-oriented society, it appears in the form of meanings to achieve the self-achievement in individual life, to express one's idea and desire in the esthetical point of views.
5. It shows that through arranging the striking things and the distorted things, it takes the compromised method of re-appreciating the existing ideas.

The phenomena in the post-modernism occurring in fashion design forced the concept of the uniformed existing fashion to be changed, creating a various fashions. That can just be called the dehumanization trend in the era of post-modernism,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ormative feature in modern fashion.

Key words : post-modernism, representation, parody, plural coding, reversed avant-garde.

Corresponding author : Lee, Eun kyung
Tel : 042) 280-2464 Fax : 042) 280-2460
E-mail : dream@dju.ac.kr

* 본 연구는 2001년도 대전대학교 교내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진행되었음

Ⅰ. 서 론

1. 연구목적

한 시대를 풍미한 예술사조는 시대 변화와 함께 그 시대에 부합된 새로운 사조로 탈바꿈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이론과 예술운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예술사조는 동시대의 패션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으며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패션의 증대, 광고, 전자미디어가 날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이승훈, 1997). 이런 시대적 분위기는 패션분야에서 고착된 가치와 사고를 거부하며 재해석, 재결합, 새로운 가치의 부여, 미적 감각의 발견, 고전의 모방, 패러디, 혼성모방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적 창조방법을 태동시켰다(진경옥, 2002).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패션 역시 개인의 감각과 사상을 전달하는 예술매체의 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및 특성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대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창조방법을 살펴봄으로써 패션 디자인의 무한한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패션의 재발견, 인식의 전환 및 미래의 패션연구방법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적극 활용해 패션의 예술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급속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현대패션의 조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주요 창조방법을 분석한 후, 그 포스트모더니즘의 창조방법과 현대패션 조형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현대패션의 정신적인 면, 심미적인 면, 실용적인 면을 일체화시키는 요인을 예술적 측면에서 분석코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한다. 이론적 연구는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국내외 문헌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특성들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적 연구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유명 디자이너 발표작품이 수록되어있는 Paris Milano 컬렉션을 이용하고, 인터넷에 실린 시각자료를 분석자료로 사용한다. 시각적 입증자료는 그림이나 사진으로 제시코자 한다.

Ⅱ.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적 배경

1.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생과 개념

포스트모더니즘은 1960년대에 일어난 문화운동이면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 관련되는 한 시대의 이념이다. 이 운동은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학생운동, 여성운동, 흑인민권운동, 제3세계 운동과 전위예술, 그리고 해체(de construction) 혹은 구조주의 사상으로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 점검과 반성을 거쳐 오늘날에 이른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알기 위해서는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모더니즘은 혁신이었으나 역설적으로 보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재현에 대한 회의로 개성 대신에 신화와 전통 등 보편성을 중시했고, 난해하고 추상적인 기법으로 대중과 유리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이 같은 절대이념을 거부했기에 탈 모더니즘, 후기모더니즘, 탈현대주의 등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결코 단순한 모더니즘의 변형이나 아류가 아니다. 모더니즘의 흐름자체가 인습이 되어버릴 정도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일련의 사조로 드러난 것이다.

'포스트'라는 접두사는 몇 개의 모순된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상투적인 것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 아방가르드의 '연속적인 혁명'을 뜻한다.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재현을 거부하기 위해 전통 혹은 과거의 형식을 빌려 현재 상황을 변형시키고 그것에 새로움을 담는 '과거의

현존'이다. 이것은 미술에서의 알레고리(allegory), 음악에서의 반복(repeat), 문학에서의 패러디(parody), 건축에서의 이중 부호(dual code) 등으로 각 문화분야에서 다원화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http://samsungdesign.net).

2.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고급예술, 고상한 취향, 고전주의나 모더니즘 같은 안정된 범주의 개념에 도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예술과 일상생활의 경계를 없애거나 고급예술과 대중문화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패러디, 이중부호, 아이러니, 유희성을 새롭게 검토하였다.

제임슨(F. Jameson)은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해 준 학자이다. 제임슨이 제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정서의 퇴조, 깊이의 소멸, 역사성의 상실로 인한 향수, 혼성모방, 주체의 죽음에 따른 행복감 등이다(Fredric Jameson, 1991).

포스트모더니즘은 장르가 붕괴되고 혼합되는 양상을 보이며, 순수예술과 상업예술간의 인위적 형식 구분도 배제한다. 꼴라쥬(Collage)기법을 통하여 여러 시대의 양식을 절충하고 부분생략, 과장, 도치, 중첩 등의 패러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1980년대에는 다른 시대,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고 혼합하는 방식이 두드러졌으며 모더니즘적 문화와 사고방식과 틀을 거부하려는 현상이 나타났다. 흑인문화의 영향이 두드러지면서 패션계에서는 나오미 캠벨, 음악계에서는 마이클 잭슨 등이 리더로 등장하였다.

Ⅲ.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 창조방법

마이클 뉴만(Michael Newman)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 창조방법을 트랜스 아방가르드, 저자의 죽음, 알레고리, 도취, 불가사의, 모조, 패러디, 브리콜라쥬(bricolage)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 다른 학자들은 패러디, 모조, 차용, 그리고 혼성모방 등을 주요 창조방법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창조방법을 정리하면 패러디, 재현, 트랜스 아방가르드, 이중 코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패러디(parody)

패러디(아이러닉한 인용, 혼성, 모방, 차용, 상호텍스트성)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요체로 간주되어져 왔다. 실제로 많은 예술가들은 패러디에 관심을 갖고 재현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의 이미지들을 발굴해 내는데 주력해왔다(진경옥, 2002).

또한 패러디는 예술적 독창성과 유일성 그리고 자본주의의 소유권, 재산권에 관한 개념들과 같은 인본주의적 관점을 검증한다. 패러디에 의해 희소성이 있고 상업적으로 가치있는 진품성은 의문시된다. 이것은 예술이 이제 그 자체의 의미나 가치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패러디 작품은 '재현의 정치학'을 전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패러디에 대한 지배적인 해석은 포스트모더니즘이 과거 형식들을 자유롭고, 반역사적인 방식으로 인용할 수 있게 만들 뿐 아니라 각종 이미지들이 범람하는 현대에서 가장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린다 허치언(Linda, Hutchen)은 포스트모던 패러디는 그것이 인용되는 과거 재현물의 맥락을 부정하지 않으며, 우리가 오늘날 불가피하게 과거와 유리되어 있음을 환기시키기 위해 아이러니를 사용할 뿐이라고 반박한다(윤여복 역, 1998).

2. 재현(representation)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재현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포스트모던의 재현은 리얼리즘처럼 소박하고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리얼리티는 어떻게 의미될 수 있으며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문제시한다. 즉 자기 의식적으로 재현의 존재의미를 일깨우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전략들은 매체를 기호와 관련하여 자연적이고 직접적인 결합을 추구하는 리얼리즘적 재현을 비판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목적하는 바는 양자의 힘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리얼리즘의 투명성과 모더니즘의 반성적 반응을 비 본성화시키는 일이다.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 재현의 불협화음적 책략이 된다.

이처럼 리얼리즘의 현실반영, 모더니즘의 자율성을 문제시하고 비교조화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 재현은 예술과 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한다. 터부시되어오던 전략들을 소환하면서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재현의 패러디와 재 차용(re appropriation)을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 재현의 역사 자체를 예술의 담론과 세계의 담론 사이에 놓인 경계선이 포스트모던 이론과 실천 속에서는 상호 침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3. 트랜스 아방가르드(trans avant-garde)

아방가르드(Avant-garde)는 기존의 가치체계와 전통일반에 대한 부정의 정신으로부터 새로운 미적가치의 추구, 새로운 조형질서의 모색, 그리고 새로운 표현방식의 실험을 주장하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현대예술을 의미한다.

모더니즘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아방가르드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태도는 상반되게 나타난다. 하나는 철저하게 아방가르드를 거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방가르드의 전략과 이상을 실질적으로 재 포착하고 고도화시키려는 것이다.

본래 아방가르드의 개념은 모더니즘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모더니즘에 관한 많은 설명들은 아방가르드의 초점의 범위를 미리 앞질러버렸다. 아방가르드는 점차로 미학과 정치적 영역의 분리, 즉 초기의 아방가르드의 정치적인 도전들이 예술가 개인의 형식적 실험의 제한된 탐구로 떨어져 분리의 입장으로 후퇴했다. 이 같은 정치적 영역과 문화적 영역의 의도된 분리의 정당화는 키치, 대중문화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양식으로 전개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양상을 비판하며 아방가르드가 경멸해온 대중문화에 대해 귀족적으로 거리를 유지해온 태도를 가차없이 버린다. 이것은 대중문화의 수용을 의미한다.

앤디 워홀(Andy Warhol)의 팝작품이 그 예이다. 앤디 워홀이 브릴로 상자나 캠벨 스프 깡통의 형상으로 작품을 제작한 차용기법은 창조에 대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최석영 역, 1995).

4. 이중 코드(plural coding)

이중코드는 다원적인 상징적 차원들을 재 도입하고 부호체계를 혼합시키며, 지방특유의 언어들과 지역 전통을 도용하는 전략적 특성을 사용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킨다.

찰스 젠크스(Charles Jencks)는 그의 저서 'What is postmodernism?'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산업화에 이어서 후기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장노동 대신 가정과 사무실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며 예술에서는 새로운 전통에 이어 여러 전통들이 혼합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들이 추구하는 스타일과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과거를 조망하기도 한다(신수현 역, 1992). 또 민족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 의미와 유행,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예술의 방식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다원주의 형식은 과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모더니즘 예술이 고전적인 것을 추방하면서 과거와의 단절을 꾀하는데 고무되었다면,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은 역사적 스타일과 기법을 복원하고 재창조하는 새로운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Ⅳ. 포스트모더니즘의 창조방법과 현대패션 조형성

Ⅲ장에서 논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창조방법들은 1990년대부터 패션흐름을 지배했다. 즉 다른 시대,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고 혼합하는 절충주의 양식, 주변의 모든 것들을 패션디자인 요소로 응용하는 브리꼴라쥬(bricollage)원본을

풍자하는 패러디(parody), 스타일의 수퍼마켓(supermarket)화를 가져온 패스터시(pastiche) 등을 표현기법으로 하여 이 시대의 패션에 표현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 안에서 나타나는 패션의 특성은 첫째, 기존의 질서가 무시되어 가치와 무가치가 쉽게 바뀌고, 역사적인 것, 민속적인 것 등 여러 의미의 가치들이 무질서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경계를 해체하며, 남녀의 차이를 두지 않는 혼성모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패션의 정신사적 측면이 중요시되고 인체를 여러 각도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소비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개성, 욕망, 아이디어에 대한 미적표현, 개인의 자율성을 성취하려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기발한 것들의 나열과 왜곡을 통해 기존의 관념들을 재음미하여 절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양리나 외, 1998).

포스트모더니즘은 획일성을 거부하는 정신적 자유와 자기 정체성으로 충만 된 여러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로서 거리 스타일 등 하위문화를 후기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표현의 소재로 끌어올려 포스트모던 패션으로서의 거리패션, 해체패션을 창출했다. 포스트모던 패션의 원본으로서의 하위문화 스타일은 이제 과거의 아방가르드 문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탈 개성적인 스타일을 거부하고, 민주적이고 자유분방한 방식으로 풍부한 감성과 자기정체성을 표현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정현숙, 1995).

포스트모던 패션은 클래식이즘, 모더니즘, 아방가르드와 노스텔지어의 융합으로 볼 수 있다. 아르데코의 조형감각을 다시 부활시키고 장식적인 수공예기법과 현대감각을 절충시키고자 하였으며, 동서양 양식의 상호절충과 전통적인 남성복을 여성복에 도입함으로써 이미지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은 포스트모더니즘적 문화 안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공간적, 다원주의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시간적 절충주의는 복고성의 개념으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조형에 있어 중요한 양식적 특성이 된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창조방법을 그 특징에 따라 정리해보면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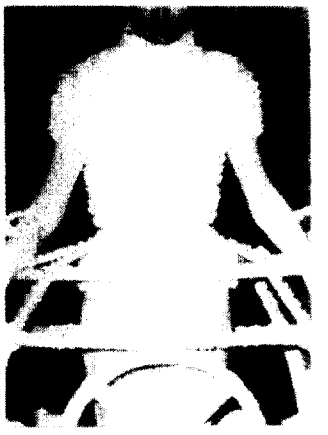
1. 혼성모방(pastiche) 패션의 다양화

혼성모방 패션은 총체성이나 질서 혹은 통합된 의미체계를 와해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오히려 그것은 불확정적인 순간이나 시각을 해방시키고 그 해체의 감격을 구가하고자 한다.

혼성모방패션이 표방하는 모방의 기법은 불확정한 기표들의 무의미한 조합으로만 이해되기엔 그것이 갖는 현대패션에서의 역할이 지대하다. 모방의 개념이 역동성과 창조성을 이끌어 가는 현대패션의 주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혼성모방패션이 갖는 독자적인 창작영역으로서의 가치를 분류하면 복고성, 민속성, 유희성, 절충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복고성

과거를 응용하여 더욱 새롭게 발전, 재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다. 이러한 복고적인 패션은 시대적 감각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든 패션으로부터 영감을 얻어낸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칼 라거펠트, 모스키노, 뮈글러, 장 폴 골티 등이 있다. 그림 1은 크리놀린을 현대패션에 응용한 디자인이고 그림 2는 버슬을 응용한 디자인이다.



(그림 1) 크리놀린을 응용한 디자인. 92/93. A/W Collezion I.

〈그림 2〉 버슬을 응용한 디자인.
92/93. A/W Collezion Ⅱ.

2) 민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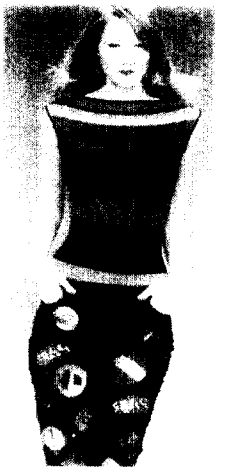
아시아나 아프리카 혹은 남미의 복식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민속풍이 현대에 적합한 패션의 주제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한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서양복식의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 동양복식의 형태미나 아프리카의 원시성에 대한 향수를 수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문화의 중심부에서 소외되었던 소수민족, 미개발국가들이 주목되기 시작하였고 이들의 민속복이나 장식들이 현대패션 조형성의 주요 모티브로 활용되었다(그림 3).

〈그림 3〉 민속성을 나타낸 C.Dior의 작품
2001. F/W C. Dior Collection

3) 유희성

현대패션의 조형성에 있어서 기발한 아이디어나 놀라움, 경악이 내포되었을 때 유머러스한 유희효과가 나타난다. 유희는 일상규칙의 위반, 이질적인 요소의 도입, 무지, 외설, 모순, 부조화를 통해 보는 이에게 놀라움, 쾌감, 우월감을 갖게 해서 웃음을 자아낸다(하지수, 1994). 특히 유아적 패션의 유희성은 과장과 왜곡, 변형 뿐 아니라 소재 등으로 순수한 즐거움을 표현한다(이정후, 1998).

아이스버그(Iceburg) 작품은 화려하면서도 재치가 있다. 체스보드 프린트, 번쩍이는 골드, 핑크와 블루의 어우러짐이 재미있고 빛나는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보여준다(그림 4).



〈그림 4〉 유희성을 나타낸 Iceburg의 작품
2001. S/S Paris Milano Collection

4) 절충성

포스트모더니즘의 새로운 양식을 계기로 고급예술과 대중문화와의 경계가 와해되고 결합되는 대중예술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런 대중예술은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테크놀리지의 진보로 인해

더욱 확대되었고, 다양성과 절충성으로 표현되었다(John A. Walker, 1997).

현대패션디자이너들은 하위문화와 고급문화의 경계를 해체하고 이들의 요소를 혼성하고 도치하는 절충성을 강조하였다. 절충성은 여러 요소가 혼성된 형태를 가지고 새로움을 표현함으로써 본래 지니고 있던 속성이 변질되어 독창적인 이미지가 표현되어진다.

그림 5는 꼼므떼 가르송(Commedes Garcons)의 작품이다. 아버지의 옷장에서 꺼내 온 듯한 큰 사이즈의 재킷은 셔링잡힌 시폰 블라우스와 하운드투스 체크스커트와 매치되어 도발적인 로맨틱해 보이는 소녀의 분위기를 연출했다(그림 5).

(그림 5) 절충성을 나타낸 Comme des Garcons의 작품
2001. S/S Paris Milano Collection

2. 포스트모더니즘을 바탕으로 한 네오 히피패션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원주의, 절충주의, 복고주의, 탈 중심주의, 해체주의 등의 현상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바탕으로 오늘날 히피는 재등장하게 된다.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히피는 출현 당시 히피들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같은 의미를 공유하지 않고 단지 외피만을 모방함으로써 저항적 하위문화 요소가 제거된 이른바 혼성모방의 현상을 지닌다.

60년대의 히피는 민속의상이나 낡은 옷들을 아무렇게나 걸쳐 입음으로써 전통에 구애받지 않는 창조성, 자기 안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반 패션(anti-fashion) 특징을 지닌 것에 비해 오늘날 재등장한 히피는 일반 패션 안에 히피의 패션요소를 공존시켜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히피들의 저항적 하위문화요소들의 의미는 제거되고 형식에 있어서도 현대패션에 맞는 새로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재현된 히피 스타일은 다소 우아한 여성스러운 네오 히피 스타일로 대두되었다. 물론 과거에 대한 향수,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정신적인 세계관과 현대인의 에콜로지 테마에 있어서는 과거의 히피룩과 일맥상통하겠지만 현대패션의 네오 히피 스타일은 여성적인 우아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6).

(그림 6) 우아한 느낌의 네오 히피룩
Givenchy, '99. S/S Collection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60년대 유행하던 히피룩을 다양한 스타일로 제시한 디자이너들이 대거 등장한다. 특히 구찌(Gucci)의 '99. S/S에 등장한 히피룩은 90년대 후반 히피룩의 열풍적 유행을 초래한 의상들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다.

60년대 히피의 에스닉 요소는 아프리카, 인디안 민족들의 영향이 짙었으나 오늘날에 재등장한 히

피는 일본풍의 심플하면서 미학적이고 절제된 듯한 직물, 자수, 실루엣 등이 대두되고 있다(그림 7).

(그림 7) 일본풍의 심플한 히피룩
Versace, '99. S/S Collection

이러한 에스닉은 꽃무늬, 패치워크, 꽃자수 등의 이국적 장식, 동양적인 프린트 등을 사용하며, 블로킹이나 동식물을 이용한 자수 등을 이용한다. 또한 히피의 노스텔지어의 요소는 집시의상과 더불어 최근까지 나타나는데, 편안한 엠파이어스타일의 원피스, 풍성한 스커트, Chunky sweater(직접 손으로 뜬 것이거나 손뜨개질한 듯한 투박하고 거친 스웨터)가 등장하였다(그림 8).

(그림 8) Chunky sweater
Dolce & Gabbana, '99. A/W Collection

히피 하위문화의 대표적 의상인 청바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낡고 찢어진 형태의 60년대 히피적 청바지가 길이, 실루엣, 색상, 소재 등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거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었다(그림 9).

(그림 9) 히피스타일의 새로운 청바지
Gucci, '00. S/S Collection

3. 포스트모더니즘은 패러디의 천국

창조성의 개념에는 어떤 한 디자이너가 독창적으로 창조해낸 것만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인용하는 작업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심광현, 1992). 현대패션은 다양한 이미지, 오브제들의 집합, 선택적 사용, 의미의 전도 등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제작방법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바로 현대패션에서 모방과 인용이 새로운 창조논리로서 위치를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패러디는 하나의 특정대상을 깨뜨리면서 동시에 그 대상을 새롭게 만들어 새로운 예술창조의 지평을 여는 것이다.

현대패션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창조성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모방양상의 광범위한 확산이다. 모방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모방과 창조성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패러디 개념이다. 독창성과 창조성에 관한 개념은 196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패러디 예술의 부상과 함께 변화가 가속되고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유로운 상상력과 기발한 아이디어에 높은 점수를 준다. 패션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카피든 패러디든 재해석이든 그 속에 특유의 위트와 기지가 숨어 있으면 된다. 시즌마다 발표되는 해외컬렉션에서 디자이너들이 즐겨 사용하는 아이디어에는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면 일본디자이너들은 유년시절에 가지고 놀던 바람개비나 튜브, 종이공에서, 영국출신 알렉산더 맥퀸이나 존 갈리아노는 연극, 록스타, 에스닉 의상에서, 프랑스의 존 갈리아노와 장폴 고티는 지난 시대의 패션 아이콘이나 한 장의 핀업 걸 사진 등에서 힌트를 얻어 아주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미한 그들만의 작품세계를 선보인다.

그림 10은 일본 디자이너 준야와타나베의 커다란 코사지와 종이공을 응용한 작품이다. 납작하지만 반대로 돌리면 공처럼 부풀게 되어있는 종이공에서 힌트를 얻은 작품이다. 그의 의도대로 '테크노 꾸띄르'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는 튜브, 바람개비, 석고틀, 키친타올, 컴퓨터용지 등 온갖 소품들을 패러디의 소재로 등장시켰다(그림 11). 꼼므 데 가르송(Comme Des Garcons)은 프라다의 입술 프린트를 패러디 해 눈과 입술과 면도날을 함께 프린트한 옷들을 선보였다(그림 12). 존 갈리아노는 몽고, 러시아, 에스키모 문화에서 비롯된 수많은 아이디어를 무대 위로 옮겨놓고 리얼리티가 느껴지도록 포장함으로써 많은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디자이너이다. 그림 13은 그 자신의 컬렉션에서 선보인 코믹한 종이인형 옷이다.

(그림 10) 코사지와 종이공을 이용한 패러디
준야와타나베, '01. A/W Paris Milano Collection

(그림 11) 튜브를 이용한 패러디
이세이 미야케, '01 S/S Paris Milano Collection

(그림 12) 프라다 입술프린트의 패러디
꼼므 데 가르송, '01. A/W Paris Milano Collection

(그림 13) 종이옷의 패러디
존 갈리아노, '01. A/W Paris Milano Collection

4. 과거와 연결고리로서의 아방가르드

기존의 미학방식이나 사고체계, 사회문화적 가치가 더 이상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을 경우 새로운 실험의 성격을 띠고 아방가르드가 나타난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이 아방가르드는 전통의 일부로 흡수되고 말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을 본다는 것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다(김민자, 1996). 왜냐하면 모더니즘 패션 주체도 그 당시 새로운 실험의 성격을 띤 아방가르드였기 때문이다. Calinescu는 모더니즘이란 19세기 중반 처음 나타난 미학적 현대성의 일종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며, 이 새로운 것 역시 다음에 도래하는 새로운 것에 의하여 대체됨을 암시하고 있다(Calinescu, 1987). 이러한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분명 모더니즘과 연결된 고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실험의 성격을 띤 또 하나의 아방가르드인 것이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이 과거와 단절됨이 아니며 미래에도 계속 변화함을 의미한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아방가르드 패션은 근대적 합리성과의 단절로서 내부 구조의 부적절함을 드러내고 이를 해체하고 혼성모방하여 끊임없는 실험의 탐색으로 패션에 심미성을 부여했다(그림 14). 심미적 아방가르드 패션의 주요기법이 되는 의복의 기본구조의 해체는 1980년대 초반 레이 카와쿠보의 작품에서 비롯된다(Richard Martin & Harold Koda. 1993). 해체는 내부로부터의 해체와 외부로부터 해체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절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사고방식이 불완전하여 전도될 수 있다는 전략이며, 후자는 의복의 물리적 형태를 파괴하여 각 요소들을 스스로의 모순적 경향을 극도로 표출시켜 반 전통적 새로움을 표출하는 혼성모방기법으로 나타난다(그림 15)

(그림 14) 내부구조의 부적절한 결합
Anna Sui, '97. S/S Paris Milano Collection

(그림 15) 아방가르드한 C. Dior 작품
'01. F/W C. Dior Collection

5. 정형화된 패션원칙 무시하기

시즌리스, 젠더리스, T.P.O리스, 칼라리스, 에이지리스…. 부정어 less가 붙은 말이 유행을 대표하는 접미어로 떠올랐다. 계절, 성별, 장소, 색의 조화, 나이를 무시하는 것이 옷을 멋스럽게 입기 위한 패션원칙이 되어버려 기상천외한 패션들이 즐거운 무시하기에 동참하고 있다. 디자이너들은 이브닝드레스같은 스타일을 데이웨어로 선보이고 있고, 여름에 입는 시드루나 레이스 의상들을 겨울 런웨이에 올리고 있다. 한창 트렌드로 부상 중인 젠더리스 모드 역시 성의 구분이 패션에서는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옷을 잘입기 위한 규칙이 없어진 대신 오히려 정형화된 틀을 깨어버리는 것이 멋쟁

이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된 것이다(Vogue Korea, 1997. 11).

1) 시즌리스

계절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한 것은 이제 특별히 화제에 오르지도 못할 만큼 일반화되었다. 이런 것은 이제 런웨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코디네이션이 되었다. 슬리브리스와 시드루 소재가 겨울 컬렉션의 메인 아이템으로 등장하고 롱부츠와 모피 트리밍이 여름 컬렉션에 심심찮게 등장한다(그림 16).

(그림 16) 시즌리스룩
C. Dior, '96 F/W Collection

2) 젠더리스

80년대 패션계에 돌풍을 일으킨 유니섹스모드가 앤드로지너스 혹은 젠더리스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런웨이는 물론 세상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마치 기존의 도덕적인 관념에 일격이라고 가하듯 남자들은 머리를 기르고 귀걸이를 하고 화려한 무늬의 꼭 끼는 셔츠를 입는다. 여자들은 넥타이와 중절모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어깨에 패드를 넣은 당당한 팬츠 수트에 옥스퍼드 슈즈를 신은 여성들이 노출이 심한 시드루 드레스를 입은 여성보다 더 섹시해 보일 수도 있다. 굳이 성별을 구별하려고 애쓰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시간 낭비인지를 말해준다(그림 17).

3) T.P.O 리스

[illegible] 패션을 나타내는 T.P.O는 옷 입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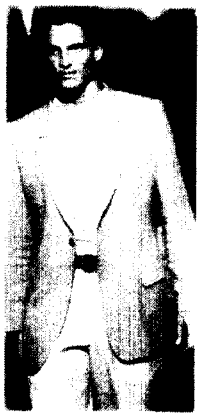
(그림 17) 젠더리스룩
Balenciaga, '97 A/W Collection

철저한 규칙이었다. 철저하게 지켜져 왔던 개념들, 밤에 열리는 파티에는 이브닝드레스를, 웨딩드레스는 노출이 심하지 않으며 청초하고 아름답게 입어야 한다는 등의 규칙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이러한 규칙은 바쁘고 개성이 강한 오늘날의 패션리더들에게는 귀찮은 굴레처럼 느껴진다. 웨딩드레스는 스트립걸이 입어도 될 만큼 노출이 심한 디자인이 선보이고 있다(그림 18). 이브닝 드레스 위에 블루진 재킷을 입고,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이나 속옷 같은 겉옷차림이 일상화된 요즈음이다.

(그림 18) T.P.O 리스의 웨딩드레스
Antonio Berardi, '97. A/W Collection

4) 칼라리스

동일색상끼리의 조화, 유사색과의 조화, 보색조화 등 이런 이론은 이제 패션에 적용키 어렵게 되었다. 물론 유사색인 보라와 분홍, 노랑과 연두, 빨강과 주황 등은 그런 대로 어울린다. 보색끼리도 마찬가지다. 보라와 노랑은 색상환 반대편에서 위치한 보색으로 강한 대조효과로서 조화롭다. 하지만 디자이너들은 연두색과 브라운, 하늘색과 브라운을 매치시킨다. 블루과 브라운(그림 19), 핑크와 퍼플, 패션디자이너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색은 없다는 듯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색상끼리 조화를 시킨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람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라도 할 듯 절묘하게 어울려 패션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그림 19) 블루와 브라운의 칼라매치
Antonio Miro '98. S/S Collection

V. 결 론

본 연구는 사물에 대한 고정적인 인식을 탈피하고 자유로운 표현과 창조적 실험정신을 실천하여, 보다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포스트모더니즘을 모티브로 설정하였다. 현대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창조방법을 분석함으로써 패션의 조형성에 포스트모더니즘적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면서 조형예술적 표현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 창조방법을 일반적인 시각에서 정리해보면 패러디, 재현, 트랜스 아방가르드, 이중코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창조방법이 현대패션에 표현된 것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았다.

- 첫째는 혼성모방 패션의 다양화이다. 혼성모방은 고정된 이미지로부터 미적 감각의 해방을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 둘째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바탕으로 탄생된 새로운 개념의 히피룩으로 이는 혼성모방의 현상을 지닌다.
- 셋째는 하나의 특정대상을 깨뜨리면서 그 대상을 새롭게 만들어 새로운 예술창조의 지평을 여는 패러디 개념의 부상이다.
- 넷째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새로운 실험적 성격을 띤 아방가르드의 출현이다.
- 다섯째는 시즌리스, 젠더리스, T.P.O리스, 칼라리스 등 디자인의 원리와 기존의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 패션의 원칙이 되고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1세기 패션디자인에 있어서는 시대흐름의 반영 및 예술사조의 개념적 적용, 그리고 독창적인 창조를 위한 적극적인 발상전환과 실험정신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순수예술작품과 일상생활을 접목시켜 패션의 조형예술적 창조방법 영역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위에서 파악된 다섯 가지의 창조방법을 광범위하고도 깊이 있게 적용해 나간다면 미래지향적 패션문화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포스트모더니즘, 창조방법, 현대패션 조형성

참고문헌

강남구(1994). 패션에 나타난 팝아트적 요소와 포스트모더니즘적 요소에 관한 연구. 청주대.

고현진 · 김민자(1995). 현대패션에 나타난 패러디에 관한 연구. 복식 25호.

김기봉(2002).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 도서출판 푸른역사.

김민자(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복식 38호.

김민자 · 노정심(1996).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21. 서울대 생활과학 연구소.

김인숙 · 김경옥(1999). 현대패션에 표현된 키치 연구. 복식 47호.

박정훈(2001). 2001학년도 교사자체 연수자료, 2001. 7. 4.

서성록(1992). 한국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 미진사.

손미희 외(1995). 1990년대 의상에 표현된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 복식 26호.

신수현 역(1992). 포스트모더니즘. Charles Jenkes저. 열화당.

심광현(1992). 차용된 표절. 월간미술, 1992, 2.

양리나 · 최나영(1998). 국내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표현된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배재논총 제2권.

윤여복 역(1998). 패러디 이론. Linda Hutchen저. 문예출판사.

이승훈(1997). 포스트모더니즘 시론. 도서출판 세계사.

이정후(1998). 포스트모더니즘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정현숙(1995).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진경옥(2002).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 표현된 패러디의 모방과 창조성. 동명정보대 정보 디자인연구소.

진경옥 · 박민여(2000). 포스트모던패션에 표현된 혼성모방. 복식 50권 5호.

최석영 역(1995). 전통의 날조와 창조. E. Hobsbawm 저.

최혜정 · 임영자(2001). 20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 문화주의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51권 2호.

하지수(1994).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 22호

Calinescu, M.,(1987). *Five Faces of Modernism.* Duke University Press.

Fridric Jamson(1991). *Postmodernism on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talism.* Duke university press.

John A. Walker(1997). *Art in the Age of mass media.* 정진국 역. 열화당.

Richard Martin & Harold Koda.(1993). *Infra Apparel.* The Metro Museum of Art.

Harper's Bazzar

Vogue Korea. 1997. 11, 1999. 6.

Vogue Italy. 2001.

http://www.samsungdesign.net/

http://norano.co.kr/museum/20c/1980.htm#top

http://user.chollian.net/~kimjjoo/postmo.htm

http://myhome.shinbiro.com/~jmjh/wah-postmodernism.htm

http;//5netart.com/art-study/post-mordern

http://www.penart.co.kr/literatureart/history/postmordern.htm

http://dongeui.ac.kr/~zlcho/postmodernism.htm

http://www.postgallery.co.kr/study/study7-6.htm